

#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

## A performing artist's perception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김초하<sup>1</sup>, 문상정<sup>2\*</sup>

Cho-Ha Kim<sup>1</sup>, Sang-Jeong Moon<sup>2\*</sup>

### 요약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178부를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 검증을 위해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과 코로나제약이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까지 모든 경로가 채택되었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공연예술인이 코로나제약을 많이 지각할수록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가 낮아지고, 공연예술인이 공동체의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예술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기제를 탐구하기 위한 시도가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주제와 결과는 새로운 이론적 확장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공연예술인,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performing artists perceiv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To achieve the study goal, we conducted a survey of professionals above the age of 20 who work in various fields of performing arts (dance, theater, music, Korean folk music, etc.). Among the collected data, 178 samples

1 Department Art & Cultural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Graduate Student]  
e-mail: llkimchohall@naver.com

2 Division of Liberal Arts, Gimcheon University, Gimcheon, Korea [Assistant Professor]  
e-mail: sjmoon@gimcheon.ac.kr (Corresponding author)

\* 이 논문은 2021년 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것임(GC21075).

Received(May 13, 2023), Review Result(1st: May 31, 2023), Accepted(June 12, 2023), Published(June 30, 2023)



© 2023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ere us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by conducting an analysis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using SPSS Amos 20.0. Our study covered all three possible hypothesis tests and showed acceptances of the following hypotheses: (1) COVID-19 restrictions would have a negative (-) effect on subject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2) COVID-19 restrictions would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desire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and (3) a strong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would have a positive (+) impact on subjects' intentions of further pursuing the arts. That is, the study results can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that the more a performing artist perceives COVID-19 restrictions, the more they lose their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ore a performing artist perceives a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the greater their intention becomes to continue pursuing the arts. This study results have multiple implications,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Furthermore, as little attempts were made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mechanisms by focusing on performing artists under a crisi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topic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building a new theoretical expansion model.

Keyword : performing artist, COVID-19 restri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intention to continue in performing arts

## 1. 서론

밀폐된 공간 또는 밀접한 거리일수록 감염 위험률이 증가한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로 공연예술계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가져왔다. 2020년 8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무용, 국악, 복합장르 등 순수예술 분야의 피해액은 1,135억 원 정도로 파악되며, 2020년 상반기에 취소된 공연 건수는 6,457건으로 조사 되었다 [1]. 이와 같은 환경은 결국 고용감소로 이어졌으며, 비대면(무관객) 공연을 하고 온라인으로 공연을 송출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상이하게도 최근 팬데믹과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은 곧 구성원의 공동체의식이나 사회적 행동양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동우 [2]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부정적 심리 반응을 유의하게 유발하고 있고, 팬데믹의 위기 상황은 곧 긍정적 심리 반응을 유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 되었다. 즉, 이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위기에 취약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르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 코로나19의 여파가 부정적 심리 반응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심리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양방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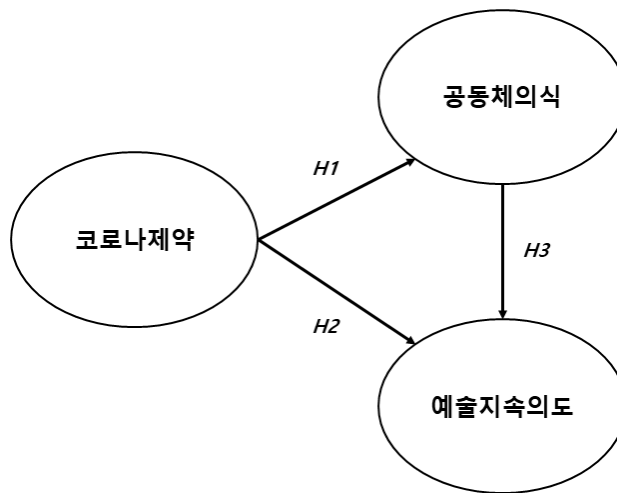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효과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주로 실제 공연예술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온라인을 활용한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3-5]’이나 ‘온라인을 통한 공연예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을 모색하는 등 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기존의 공연예술인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

다. 그러나 현시점과 같은 어려운 사회적 위기에서 예술분야가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방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료되어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제약이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 H1.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은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공연예술인의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 2.2.1 코로나제약

본 연구에서 코로나제약은 고동우 [2]의 연구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인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생활의 제약과 위협을 느끼고 염려를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여 이를 지각하는 정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동우 [2]의 연구에서 측정한 바 있는 총 3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협 여부와 개인적인 삶의 위협, 팬데믹 이전 일상과 현재 변화에 대한 지각 수준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2.2 공동체의식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은 김초하 [9]의 연구에서 McMillan & Chavis [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소속감, 영향관계, 욕구충족, 친밀감의 공유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인의 공통된 집단의식 상태로 정의한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측정척도는 McMillan & Chavis [10], Peterson & Speer & McMillan [11], 김경준 [12], 박가나 [13], 장수지 & 김수영 & Kobayasi [14]의 측정 문항을 고동우 [2]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참고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2.3 예술지속의도

본 연구에서의 지속의도는 김초하 [9]의 연구에서 예술활동을 일정기간 유지 또는 오래 계속하는 성질로서 예술지속의도로 정의한 개념을 참고하였으며, 측정척도는 최영창·장영심 [15], 서희진 [16]과 이동준 [17]의 측정척도를 류기형 [18], 오수학·송윤경·김현정·허미향·조정환 [19]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김초하 [9]의 연구에서 재구성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총 6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2.3 조사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구조적 관계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중에서도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20부를 배포하여 17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하여 얻은 자료는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실증분석

#### 3.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표본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연령, 학력, 전공분야, 활동 경력, 연간평균소득, 거주지역, 성별, 협회가입여부 등의 기술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7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7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26	14.6	학력	중졸	1	0.6
	30대	69	38.8		고졸	17	9.6
	40대	44	24.7		대졸	85	47.8
	50대	23	12.9		대학원재학	9	5.1
	60대이상	16	9.0		대학원 졸업	66	36.9
전공 분야	음악	30	16.9	활동 경력	2년미만	6	3.4
	전통예술	33	18.5		2-3년	5	2.8
	연극	57	32.1		4-5년	11	6.2
	무용	58	32.5		6-7년	16	9.0
					8-9년	13	7.3
연간 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25	14.0	거주 지역	10년이상	127	71.3
	500만원미만	44	24.7		서울	77	43.3
	1천만원미만	38	21.3		인천/경기	54	30.3
	2천만원미만	30	16.9		대전/충청	12	6.7
	3천만원미만	19	10.7		광주/전라	9	5.1
	4천만원미만	13	7.3		대구	3	1.7
	5천만원미만	2	1.1		경남	5	2.8
	5천만원이상	7	3.9		강원	1	0.5
성별	남자	82	46.1	협회 가입 여부	제주	17	9.6
	여자	96	53.9		가입	120	67.4
					미가입	49	27.5
					기타	9	5.1

#### 3.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신뢰도평가에 앞서 문항분석법에 의하여 각 개념별로 측정문항의 전체합산치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을 제거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체의식에서 3개의 문항이 제거되었다(나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노력하면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다).

더불어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요인별 각각 .907(코로나제약), .855(공동체의식), .965(예술지속의도)로서 내적 합치도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라는 점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측정척도의 항목에 대하여 순화과정을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서 각 척도의 단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표 2]와 같다. 이 분석과정에서 단일 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공동체의식(3번 문항)과 예술지속의도(5번 문항)에서 각각 1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표 2 참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GFI, NFI, CFI 계수가 0.90이상으로 제시되고 있어 적합도 지표들이 매우 만족스러운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척도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의 단차원적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척도의 단차원성

[Table 2] Uni-dimensionality of measurement scales

문항	estimate	t-value	C.R
F1. 코로나제약			.902
1. 코로나 19 감염확산으로 귀하는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나요?	.788	-	
2. 코로나 19로 인해 ‘개인적인 삶의 위험’에 대하여 요즘 귀하는 얼마나 염려하고 계신가요?	.761	10.342	
3. 코로나 19 발생이후 지금까지, 귀하의 일상생활은 코로나 이전과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까?	.898	10.993	
$\chi^2=.000(p=-)$ , $df=0$ , $GFI=1.000$ , $AGFI=-$ , $RMR=.000$ , $NFI=1.000$ , $CFI=1.000$			
F2. 공동체의식			.900
1. 우리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678	-	
2. 이 사회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790	7.814	
3.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	-	
4. 우리 사회에는 고유한 정신이나 질서가 있다	.585	6.467	
5.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	.709	7.494	
$\chi^2=6.007(p=.050)$ , $df=2$ , $GFI=.984$ , $AGFI=.918$ , $RMR=.021$ , $NFI=.970$ , $CFI=.979$			
F3. 예술지속의도			.930
1. 나는 앞으로 예술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920	-	
2. 나는 향후 예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싶다	.912	20.770	
3. 나는 스스로 예술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할 것이다	.929	21.942	
4. 나는 앞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동안 곤란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875	18.513	
5. 나는 향후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예술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	-	
6. 나는 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관리(발전)하고자 한다	.899	19.923	
$\chi^2=4.810(p=.439)$ , $df=5$ , $GFI=.989$ , $AGFI=.967$ , $RMR=.004$ , $NFI=.995$ , $CFI=1.000$			

주1. #은 삭제된 문항임

### 3.3 측정모델의 평가

Anderson & Gerbing [20]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그리고 예술지속의도를 포함하는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Amos 20.0으로 추정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GFI 값이 .90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되는 측면도 고려되어 본 연구의 측정모델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73.254(p=.022)$ ,  $df=51$ ,  $\chi^2/df=1.436$ ,  $GFI=.939$ ,  $AGFI=.907$ ,  $RMR=.026$ ,  $NFI=.950$ ,  $CFI=.984$ ,  $RMSEA=.050$ ). 모든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이 .855이상으로 만족스러운 신뢰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 역시 .90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척도 분산 중 특성(trait)에 설명되는 비율을 뜻하는 평균분산 추출 값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코로나제약은 .755, 공동체의식은 .695, 예술지속의도는 .731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척도의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0][21].

한편, 척도의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2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보다 엄격한 방법으로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구성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22]. 이 평가에서 [표 3]의 3개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AVE값을 초과하지 않아 모두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척도는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측정모델의 평가결과

[Table 3] Evaluation result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성개념	구성개념간 상관관계 <sup>a</sup> (inter-construct correlations)		
	1	2	3
1. 코로나제약	1.000		
2. 공동체의식	-.259	1.000	
4. 예술지속의도	-.284	.550	1.000
Cronbach's $\alpha$	.907	.855	.809
구성개념 신뢰도	.902	.900	.930
AVE <sup>b</sup>	.755	.695	.731
모델 적합도	$\chi^2=73.254(p=.022)$ , $df=51$ , $\chi^2/df=1.436$ , $GFI=.939$ , $AGFI=.907$ , $RMR=.026$ , $NFI=.950$ , $CFI=.984$ , $RMSEA=.050$		

주 : a : 상관계수의 표준오차 추정구간(two-standard error interval estimate)은 1을 포함하지 않음.

b :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 3.4 연구모델의 평가 및 가설의 측정

#### 3.4.1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가설 검증(H1)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이론변수들간의 경로계수와 c.r값을 확인하였다. 가설의 검증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은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1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59를 나타내었고, c.r값은 -2.95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 3.4.2 코로나제약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2)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은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2를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52를 나타내었고, c.r값은 -2.037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 3.4.3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에 관한 가설 검증(H3)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식은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가설 3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을 나타내었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안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또한,  $r^2$ 에서 볼 때 내생변수인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는 16.7%, 32.4%가 각각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제안모델의 추정결과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경로(가설)	표준화된 계수값	표준오차	C.R	p-value
코로나제약 → 공동체의식(H1)	-.259	.089	-2.954	.003**
코로나제약 → 예술지속의도(H2)	-.152	.090	-2.037	.042*
공동체의식 → 예술지속의도(H3)	.203	.101	2.199	.028*
$r^2$ (공동체의식) = .167, $r^2$ (예술지속의도) = .324				
모델 적합도	$\chi^2=73.254(p=.022)$ , $df=51$ , $\chi^2/df=1.436$ , GFI=.939, AGFI=.907, RMR=.026, NFI=.950, CFI=.984, RMSEA=.050			

주: \* :  $p < .05$ , \*\* :  $p < .01$

## 4. 결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과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무용, 연극,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20세



이상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거된 데이터 중 178부를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 검증을 위해 SPSS Amos 20.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제약이 공동체의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분석 결과, 경로계수는 -.259로 나타났고 c.r값은 -2.954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코로나제약이 예술지속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152로 나타났고 c.r값은 -2.037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공동체의식이 예술지속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에 대한 분석결과, 경로계수는 .203으로 나타났고 c.r값은 2.199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즉, 가설3의 결과는 예술인이 공동체의식을 높게 지각할수록 예술을 지속하고자 하는 예술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반면 가설 1,2의 결과는 고동우 [2]의 연구와는 상이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사회적 제약 상황 속에서는 공연예술인이 코로나제약을 많이 지각할수록 공동체의식과 예술지속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연구로써 예술학 분야의 새로운 이론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용, 음악, 연극, 국악 등 각 분야별 예술인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가능하며, 나아가 문학, 미술과 같은 문화예술 종사자를 대상으로도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의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공연예술인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공연예술의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척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나, 공연예술인이 지각하는 변수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구성개념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가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신뢰성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나, 측정척도가 완전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향후 연구모형의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제약과 관련된 변수 간의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변수들을 포괄한 모델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연예술인을 대상으로 코로나제약, 공동체의식, 예술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탐험적으로 시도되는 초기의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References

- [1] S. H. Lee, "A Study on th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in the COVID-19 Er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4, November 2020, pp. 567-579, doi: 10.17703/JCCT.2020.6.4.567.
- [2] D. W. Ko, "What Makes People Overcome COVID-19 Pandemic?: Vulnerable or tolerable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21, no. 3, August 2020, pp. 399-424, doi: 10.21074/kjcap.2020.21.3.399.
- [3] G. E. Kim, J. W. Park, "A Study on Development Plans through Case Analyses of Online Platforms for Post-Corona Era Performance Visualizations",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arts and culture*, vol. 1, no. 2, December 2020, pp. 15-31, doi: 10.47415/IRAC.1.2.2.
- [4] H. J. Lee, "A Study of the Revitalization of Performing Arts in the Post-Corona Era :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performance visualization platforms", Master's Thesis, Dept. of Film Arts, Sejong University, 2021. [Online]. <http://www.riss.kr/link?id=T15898666>.
- [5] H. S. Kim,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Technology of the Cultural Industry to Revitalize Untact Performing Art Field",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vol. 19, no. 2, June 2021, pp. 19-34.
- [6] J. Y. Yoon, "A Study on Non-contact Classical Music Performance Cases and Ways to Improve Performing Arts in the COVID-19 Er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February 2021, pp. 2389-2403, doi: 10.22143/HSS21.12.1.169.
- [7] Y. J. Hwang,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Online Performing Arts in the Post-Corona Era", Master's Thesis, Dep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2021. [Online]. <http://www.riss.kr/link?id=T15767495>.
- [8] Y. J. Lee,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performances and development plans for local festivals in the post-corona era : focusing on the performing arts festival in Chuncheon, Gangwon-do", Master's Thesis, Dept. of Performing Arts, Hanyang University, 2021. [Online]. <http://www.riss.kr/link?id=T16031283>.
- [9] C. H. Kim, "Analysis of the Effect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nd Culture : focusing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subjective well-being, and adherence to art activities",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2021.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5767568>.
- [10] D. W. McMillan, D. M. Chavis,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14, no. 1, January 1986, pp. 6-23, doi: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P2290140103 >3.0.CO;2-I.
- [11] N. A. Peterson, P. W. Speer, D. W. McMillan, "Validation of a Brief Sense of Community Scale: Confirmation of the principal theory of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 6, no. 1, December 2008, pp. 61-73, doi: 10.1002/jcop.20217.
- [12] K. J. Kim,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ducation Major in Rural Social Eng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4462284>.

- [13] G. N. Park,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Doctoral thesis,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Online]. Available: <http://www.riss.kr/link?id=T11565026>.
- [14] S. J. Chang, S. Y. Kim, E. Kobayashi, "Cultural Disposition and Sense of Community in Different Age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8, no. 2, May 2014, pp. 1-24, doi: 10.21193/kjspp.2014.28.2.001.
- [15] Y. C. Che, J. Y. Si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Youth Volunteer Activities in terms of Continuity, Motivations and Intention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2, May 2008, pp. 87-109.
- [16] H. J. Seo, "The Relationships among Physical Activity Needs, Satisfaction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ance of Physical Activities in the Universities", *Journal of Korean Sociology of sport*, vol. 16, no. 1, June 2003.
- [17] D. J.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Enjoyment source of General Physical Education and Intention to Continuance of Physical Activities in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45, no. 3, May 2006, pp. 131-140.
- [18] K. H. RYU, "A Study on the Impact to Volunteering Satisfaction and Retention Will of Job Characteristic Factors", *Social Welfare Policy*, no. 35, December 2008, December 2008, pp. 221-243, doi: 10.15855/swp.2008..35.221.
- [19] S. H. Oh, Y. K. Song, H. J. Kim, M. H. Her, J. H. Cho, "The Construct-Related Validation of An 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vol. 2, no. 2, December 2000, pp. 39-52.
- [20] J. C. Anderson, D. W. Gerb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3, no. 3, May 1988, pp. 411-423, doi: 10.1037/0033-2909.103.3.411.
- [21] R. P. Bagozzi,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March 1988, pp. 74-94, doi: 10.1177/009207038801600107.
- [22]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February 1981, pp. 39-50, doi: 10.1177/002224378101800104.